

충남리포트 제197호

ChungNam Report

2015. 12. 10.

CONTENTS

< 요약 >

1.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
2. 홍동 유기농업의 변천
3.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4. 홍동 유기농업의 과제
5. 향후 정책 과제

충남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 기 홍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본 연구는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충남 유기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요 약

- 충남 홍성군 홍동면(일명 '홍동마을')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오리농법을 통해 홍성군 전체로 확산되었음. 현재 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인증 재배면적 대비 유기농업인증 재배면적 비율이 전국 최고이며, 2014년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었음
- 홍동의 유기농업은 1975년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인 애농회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풀무학교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실천되어 왔음
- 1994년에 도입된 오리농법은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동시에 오리 보내주기 운동 등을 통해 도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도농교류로 확산되었음. 이와 더불어 흑향미 재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홍동 유기농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됨
-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은 생산자들의 단합,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연대, 자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임
- 그러나 최근 오리농법의 포기 증가,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문제, 소비자 교류 축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동 오리농법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고령화 문제 해소, 소비자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과 행정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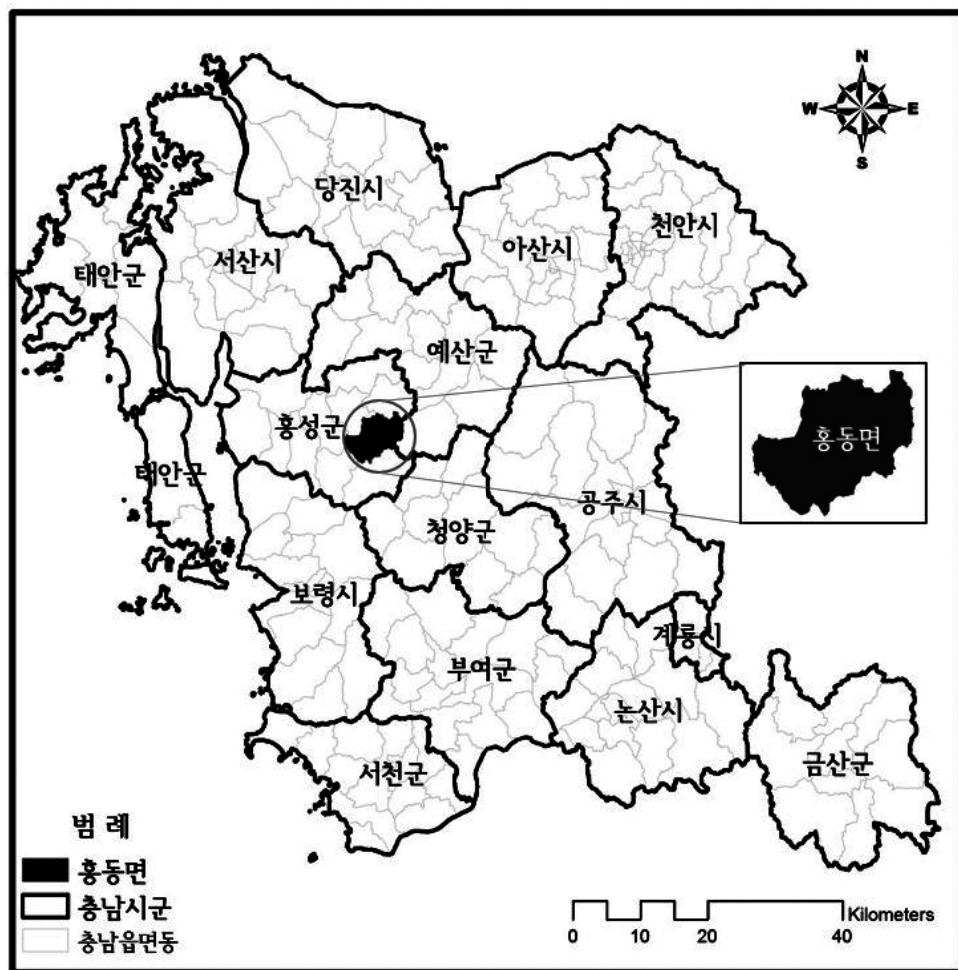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 ◀

01

- 홍동(洪東)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지칭하며 홍성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고 있음. 2014년 12월 현재 인구 3,772명으로 총 가구 1,629호 가운데 1,347호 약 83%가 농가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임. 1958년 지역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풀무학교가 세워져 지역사회와 지역농업이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홍동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오리농법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거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유기농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운동, 사회적기업 선진 사례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9월에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됨¹⁾. 2013년 말 기준 홍성군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717ha로 이 가운데 유기농업 인증 재배면적은 전체의 약 81.7%인 586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치임(홍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5).
- 본 연구는 홍동의 유기농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홍동의 유기농업의 특징을 통해 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이는 타 지역의 성공적인 유기농업 실천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임.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해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유기농업특구' 지정은 홍성군이 처음임.

홍동 유기농업의 변천 ◀

02

- 홍동에서의 유기농업 역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인 애농회와 애농학교의 이사장인 ‘고다니 준이치’씨가 홍동을 방문하여 한일 역사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함.

[표 1]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과 관련한 활동

연도	내용
1958년	풀무학교의 설립
1959년	풀무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교내 구매부에서 협동조합 시작
1960년	교내에 교사와 졸업생 5명이 신용협동조합 시범운영
1969년	협동조합 정식 창립총회로 교내 풀무소비조합 발족
1969년	학교 교직원과 학생 18명 풀무신용협동조합 시작
1972년	풀무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정식 업무 시작
1975년	일본 애농회 고다니 준이치씨 풀무학교 방문
1976년	풀무학교 유기농업 시작, 졸업생 유기농업 시작
1976년	정농회 설립
1977년	풀무학교 교사의 일본 애농회 초청 유기농업 연수
1979년	갯골 어린이집 설립
1980년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주민 31명, 출자금 7만원)
1982년	풀무신협에서 유기농업작목회 결성
1983년	풀무생협 발전적 해체 후 45명으로 재창립
1984년	수도권 소비자 단체와 직거래 시작
1987년	여성민우회생협과 풀무생협 직거래 시작
1990년	풀무소비자협동조합에서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바뀜
1990년	일본농민단체와의 교류로 농민들 일본 연수(최성봉교사와 홍동 농민 5명 유기농업 연수)
1991년	정농회 홍성지회 설립
1992년	정농회 홍성지회 생산자 가을걷이 행사 개최, 풀무생협 유기농업 생산자회 발족
1993년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창립

- 이후 홍동의 풀무학교(1958년 설립) 졸업생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실천되었으며 풀무학교 출신이 아닌 농가도 참여.
- 초기에 유기농산물은 자체적인 홍보로 직거래되다가 90년대에 서울에 있는 정농회와 풀무원 회원들에게, 이후에는 생협을 통해 판매됨.
 - 이러한 경험은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이어져 1992년에 처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가을걷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짐.
- 오리농법의 도입은 홍동 유기농업의 성장을 가져옴. <표 2>와 같이 1994년에 문당리 3개 농가에서 오리농법이 시작되어 1995년에는 19개 농가(31,900평)가 오리농법 작목반을 결성하여 무농약 단체 인증을 획득하게 됨.

[표 2] 홍동 유기농업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

연도	내용
1993년	일본 오리농법 실천 농가 후루노씨 창녕 방문(홍순명씨, 최상업씨 참여), 주형로씨 ‘현대농업’에 게재된 우리농법 기사를 접함, 주형로씨 ‘현대농업’에 게재된 우리농법 기사를 접함
1994년	문당리 주형로씨(9,000평), 광민기씨(1,000평), 이동준씨(1,000평) 오리농법 시작
1995년	문당리 19농가(31,900평) 오리농법 작목반 결성 무농약 단체 인증 획득 도농일심 오리 보내기 행사 중앙일보 게재 도농일심 오리넝기 행사, 도농일심 교류행사 개최
1996년	흑향미 도입, 오리농법 작목반과 홍동농협 단지 계약, 오리농법 작목반 환경기금 적립, 제1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참가
1997년	홍동 지역개발연구회 14명 일본 시모고 농협 방문 제2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풀무학교에서 개최
1998년	문당리 오리농벼 유기재배단지 단체 품질 인증
1999년	생협법 시행으로 풀무소비자협동조합이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 제3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개최(베트남 하노이),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생산자와 농협, 유통업체 삼자 계약재배 실시,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설립
2000년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준공(강당 80평, 식당 80평, 숙소 90평),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서 수립
2001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환경농업과 제1회 입학식
2002년	홍성오리농법 단지 약 120만평 돌파(유기인증 472농가)
2003년	문당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농림부), 정보화시범마을 선정(행정자치부), 농촌마을 가꾸기 대상 수상(농림부), 문당리 벼 전문 도정공장 운영(지구조성사업비)

연도	내용
2004년	홍성군 친환경 쌀 작목 연합회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에 친환경농업 쌀 공급을 위한 급식비 지원,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문당리, 금평리, 화신리 5개 마을, 2005~2009년, 73억6천만 원), 제4차 아시아 오리벼농사 농민대회 개최(중국 진강시, 7월)
2005년	홍성군의회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연간 마을 방문객 2만명 돌파, 홍동면 오리농업 약 900농가(230만평),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생산자 45명으로 창립, 풀무신허 미생물 공장 준공
2007년	농협 DSC(건조 및 저장 시설) 설치 운영
2009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2010년	문당환경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제7회 친환경농업대상 공로상 수상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환경농업교육관)

- 오리농법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도농일심(都農一心) 함께 짓는 농사’라는 형태로 시작되어 소비자와의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 도시민의 지지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과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농약과 제초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생산자가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
- 1995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와의 연대가 이루어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교류회를 가지게 됨. 농가들은 순수 지어낸 농축산물을 통해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고 도시민들은 농촌과 농업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교육적인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검정쌀인 흑향미의 도입은 일반미와 차별화되어 부가가치의 상승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기를 마련함. 이로써 홍동 농협과의 단지 계약이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연결됨.
- 오리농법은 1994년 1만평, 1천 마리로 시작되어, 2000년에는 홍동면 법정리 14개 전 지역에 걸쳐 총 23개 마을의 372농가가 유기농업을 실천함. 2002년에는 장곡과 청양군 등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472농가로 증가하게 됨<표 3>.

- 한편, 이러한 타 지역으로의 확대는 농가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나 2005년부터 생협과 농협에서 동시 관리하던 방식에서 농협만의 회원으로 정비하게 됨. 그리하여 총 315농가에서 약 5만수에 달하는 오리농법이 이루어졌고 참여 농가수도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게 됨.

[표 3] 2000년과 2002년 홍성 오리농 작목회 농가수 및 면적

개수	마을이름	2000년		2002년	
		농가수	면적(m ²)	농가수	면적(m ²)
1	문당리 문산	38	425,165	40	447,391
2	문당리 동곡	9	82,295	10	119,643
3	금평리 상하중	25	244,593	24	293,609
4	금평리 김애	18	255,756	18	159,074
5	홍원리 모전	30	289,467	29	292,309
6	홍원리 상원	26	147,003	23	133,880
7	홍원리 하원	11	49,552	11	55,935
8	효학리 효동	17	129,873	18	141,623
9	효학리 학계	11	72,318	11	67,252
10	운월리 창정	14	119,134	13	110,932
11	운월리 운곡	24	198,399	26	185,995
12	운월리 상반월	19	202,233	13	139,190
13	월현리 개월	20	148,853	24	168,921
14	화신리1	14	197,654	22	278,155
15	화신리2	11	124,776		
16	구정리 동막	23	117,484	19	90,376
17	팔괘리 송정	6	19,510	11	72,157
18	팔괘리 석산	7	30,736	7	32,068
19	원천리 중원	13	66,199	10	44,302
20	대영리	23	94,115	8	25,833
21	신기리 신촌	8	62,700	9	68,404
22	금당리 성당	4	33,700		
23	수란리 산양	1	13,806	2	24,885
24	구정리 고요			8	79,115
25	신기리 만경			5	47,893
26	금마면 장성리			24	217,472
27	장곡면 가송리			10	70,051
28	장곡면 대현리			19	86,303
29	장곡면 도산리			8	64,569
30	청양군 화성면			18	116,116
31	보령시 청라면			32	264,800
총계		372	3,125,321	472	3,898,253

출처: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정리

- 오리농법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2005년이 되면서 흑향미는 쌀 소비의 둔화와 더불어 기존의 판매량으로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가세가 지속되지 못함.
 - 이러한 판매 부진으로 농협에서는 매취하던 쌀을 수량제한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2007년 당시 농협과 계약하고 있던 농가수는 225농가로 줄어들게 되어 홍동 유기농업은 예전만큼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함.

- 오리농법은 2008년에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후 오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부담으로 우렁이농법으로 대체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됨.

- 홍동에서 오리농법은 상징적으로 남게 되었지만 2013년부터 농협 오리농 작목회에서는 오리농법을 지켜나가기 위해 논 세 구간 중 한 구간(900평)에서 오리농법을 실시하는 의무조향을 만들게 됨.
 - 2014년 현재 농협 오리농 작목회에서는 150구간, 135,000평에서 4,030마리의 오리를 사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3,185마리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지역공동체의 발현: 단합**

- 홍동의 초창기 유기농업은 개인의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반면 유기농업기술과 정보는 부족하여 자연스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농가들이 연대하는 형태를 띠게 됨. 이후 협동조합과 농가조직의 형태로 발전하게 됨.
- 한편 마을 단위에서는 ‘나만 안 하면 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 또 다른 의미의 지역공동체적 의식이 나타남.

● **소비자와의 연대**

- 홍동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소비자와 교류하는 방식이 일찍부터 자리잡혀왔고, 1995년 오리 보내주기 운동으로 연결되어 도시민과의 직접적인 연대 활동으로 발전하게 됨.
- 홍동의 초기 유기농업에는 일찍부터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구축 과정이 존재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소비자 간 교류는 홍동의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신뢰의 발판을 마련함.

●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 지역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 홍동의 초창기 유기농업의 성공은 유기농업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농가 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과의 교류는 유기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시켰고 그러한 공감대에 대한 확신은 농가 간 단합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었음.

● 사라져가는 오리농법

- 초창기 홍동 오리농법의 도입은 농약 대신에 직접 제초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령화된 농가들에게는 오리 사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오리농법의 포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리농법은 현재 홍동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됨.

●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문제

- 홍동 문당리 문산마을에서 유기농업을 처음 시작한 농가들의 평균 나이는 현재 72세에 달하며, 대부분의 농가는 후계자 없이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음. 이는 문당리, 나아가 홍동의 유기농업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비자 교류 축소

- 오리농법의 쇠퇴는 오리를 통한 도농 교류의 장을 축소시켰음. 한편 홍동의 오리농 쌀은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의 확보로 이어졌으나 오리농 쌀에 대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활동을 홍동농협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홍동에서의 오리농법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

- 오리농법은 땅이 제 기능을 되찾고 미생물들이 살아나면서 토질개선에 이바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리농기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교감 기능을 담당하는 등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단순한 농법적인 차원을 넘어 홍동에서 오리가 가지는 교감과 정서,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다원적 접근이 필요함.
- 홍동이 처음으로 시도하여 이루어낸 ‘오리농법’은 청정 충남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이라는 키워드 활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고령화 문제의 해소**

- 고령화는 홍동 뿐 아니라 충남의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후계자 확보 차원을 넘어 농촌 지역 인적 인프라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책과 연결되어야 함.
- 홍동은 많은 귀농귀촌자들이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영역을 확대시켜가는 곳이기도 함. 이러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귀농귀촌자들을 홍동에서 어떻게 정착시키고 활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은 충남의 선진 실천 사례가 될 것임.

●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

- 앞으로 유기농업은 유기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지역 간, 농가조직 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동만의’ 소비자 팬을 확보하는 일이 지속적인 홍동의 유기농업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충남의 타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는 주말 장을 여는 방법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기회를 늘여가야 함. 이는 연대의 시작으로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중개가 필요한 이유는 생산자 스스로가 지속적인 구매를 해 줄 지역 소비자를 찾기가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생산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 일본의 유기농업연구회가 연구회에 등록된 유기농업 실천 농가와 지역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도록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기농업 생산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4~5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그룹의 요청 시 가장 가까운 생산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음.

김 기 흥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5, kimkh@cni.re.kr

※ 본 리포트는 2014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참고 자료 ◆

- 김정섭(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제23집 2호, pp.173~223
- 김호, 조완형(1995), 유기농산물 생산의 특성과 경영소득 분석: 충남 홍성군 홍동면 풀무생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4(1),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홍주(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학회지, 18(1), 한국 농촌사회학회, pp.43~89
- 송두범 외(2013),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기여 강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09
- 주형로(2000), 지속적 환경보전 농업에 따른 오리농법, 한국유기농업학회 2000년도 상반기 심포지엄, pp.151~166
- 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8),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1권
- 풀무교육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8),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2권
- 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농촌사회, 19(1), 한국농촌사회학회, pp.161~211
- 홍동마을 사람들(2014), 마을공화국의 꿈, 홍동마을 이야기, 한티재
- 홍성환경농업마을(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서울대학교 용역 보고서
- 후루노다카오(2006), 농사를 재미있게 짓는 총합기술: 오리농법, 그물코출판사
- 희망제작소(2008), 작은 농부의 100년 계획서: 오리농법의 선구자 주형로의 농사이야기, 푸른 나무
- 金氣興(2009), 有機農業の役割と課題: 日本と韓国の比較研究, 東京大学大学院, 博士論文
- 金氣興(2011), 地域に根ざす有機農業: 日本と韓国の経験, 筑波書房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휘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간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필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